자식이 뭐길래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여름휴가 기간에 '천년의 질문'을 읽었다. 조정래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재벌 비자금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사주간지 기자를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재벌과 언론 등이 온통 부패의 고리로 엮인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마치 김지하의 담시 '오적'(五賊)이 소설로 되살아난 듯했다.

'오적'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1970년.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하지만 50년이 다 되어 가는 그 긴 세월에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권력과 명예와 돈을 거머쥔 수많은 '도적'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 작가는 천년을 이어 온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욱 '국가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방관 속에 진행된 일본의 경제 침략,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바람 앞의 등불'이라면 너무 심한가. 나라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던 대통령의 말씀이 공허하다.

시선을 안으로 돌려 봐도 조국(祖國)을 구하려는 이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국(曺國)을 구하려는 세력과 그를 내치려는 세력 간의 정파 싸움만 어지러울 뿐이다.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듯 상호간에 쉴 새 없이 날선 공방만 오간다.

과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일찍이 시인이 오적 중의 하나로 지목했던 장관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 한때 그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이들마저 실망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털어놓는다.

민심이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딸의 '금수저 입학' 문제다. 고교·대학·대학원을 필기시험 한 번 치르지 않고 통과하는 '신(神)의 재주'를 보며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고작 2주 동안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 주인 몫인 제1저자를 차지한 것도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신의 솜씨'라 할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딸만은 하늘로 비상하는 용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다.

만신창이 된 조국 후보자

그랬으니 대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나온 것일 게다. 남의 집 자식들은 개천에서 가재·붕어로 살라 하고 제 자식은 용으로 승천시키려고 별짓 다했다는 비난이 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랬으니 정의에 민감한 젊은이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할아버지의 경제력이나 엄마의 정보력도 없는 많은 장삼이사(張三李四) 서민층은 무력감에 공분(公憤)을 감추지 못한다.

"재산만 56억 넘는 분이 그렇게 딸 장학금 받고 싶었나요? 유급 두 번이나 한 딸인데." 그런 원망의 소리도 들린다. 한마디로 '국민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역린'(逆鱗)은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이다. 이 비늘을 건드리면 용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고 전해진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으면 '국민 역린'이란 말까지 나돌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조국 후보자를 생각하면 한편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다. 일찌감치 딸이 좋아하는 드럼이나 치게 하고 의사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자식이 뭐길래. 하긴 생전에 이병철 회장도 평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세 가지 중 하나로 자식 농사를 꼽았다지 않던가. (나머지 두 가지는 골프와 조미료 사업에서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한 것)

어찌 됐든 '진공청소기로 빨아도 먼지 하나 없을' 것 같던 그였기에 배신감은 더욱 큰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내로남불'이란 말로도 부족했던지 직접 그를 겨냥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까지 생겨나 회자(膾炙)되고 있으니.

사모펀드만 해도 그렇다. 공모펀드의 반대쪽에 있는 듯한 이게 무엇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이 방면에 완전히 젬병인 나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부모와 자녀들로만 구성된 펀드일 경우 부모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약금을 내면 자녀들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투자자끼리 주고받은 위약금이니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절묘한 절세 방법이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도 친족으로만 구성돼 있고 그의 두 자녀도 포함돼 있다. 이러니 개구리·붕어·가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조로남불'에 민심 돌아서

그럼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조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가 끝까지 버텨서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어느 가진 것 없는 '달동네 좌파'에게 물었더니 역시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고구마 줄기 따라 무수한 고구마가 딸려 나오듯 그렇게 많은 흠결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아직 그를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달리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가진 것 많은 '강남 좌파'지만 그래도 '같은 좌파라서 지지하느냐'고 또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사법 개혁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였다.

아, 사법 개혁! 소설 '천년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관행인 전관예우의 실상이 자세히 묘사된다. 특히 재벌들에게 전관예우는 골치 아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요술 지팡이'나 다름없다. 재판하던 판사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며, 그들은 '전관예우'라는 막강한 보너스에 힘입어 수 년 만에 수백 억대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다. 검사도 썩었고 판사도 썩었다. 이를 어찌 현실이 아닌 픽션이라고만 우길 수 있을 것인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 한데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국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이 무너지면 수구 꼴통 세력들이 제 세상 만난 듯 춤을 출 텐데, 그 꼴만은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게 우리 지역 사람들의 공통된 정서인 듯한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일을 어쩌나. 일단 수사가 시작됐으니 '사람에게는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 했던 어느 칼잡이(윤석열 검찰총장)의 '칼춤'을 구경하면서 느긋이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故홍남순 변호사 자택 원형 보존한다

광주 동구 궁동…市, 10억 들여 리모델링 2022년 완료

광주지역 민주·인권의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동구 궁동 자택 원형 보존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인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사적지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용역비로 4700만원, 전체 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9월부터 용역에 착수하면 내년 3월께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옥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적지 원형 보존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옥 감정평가와 가옥 매수를 거쳐 내년 4월 착공, 2022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홍 변호사가 거주한 가옥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보존·관리·공간의 활용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 홍 변호사가 실천한 민주·인권·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과 생애사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료도 발굴한다.

1950년대 중반 홍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면서 거주한 궁동 주택은 그가 세상을 떠난 2006년 10월까지 '민주 사랑방'으로 불렸던 곳이다.

유신정권 때 민주화 투쟁의 호남지역 거점으로 사용됐고, 1980년 5·18 당시에는 항쟁과 수습을 위한 대책 회의 장소로 이용됐다.

지난 2017년 9월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됐다.

2006년 타계한 홍 변호사는 1963년 궁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80년 5월에는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 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에 전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美 "韓日 양측에 실망"…의미있는 대화 촉구

에스퍼 국방장관, 기자회견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한일 양국 모두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며 추가 긴장 고조를 유발할 행위 중단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간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한일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철회를 통해 통상적인 무역 관계를 복원하길 선호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특사 파견' 등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관여 여지도 열어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주관한 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백색국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 특사'의 추가 파견 가능성도 열어뒀다.

/연합뉴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투자자 모심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 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 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 의 010-5464-4448(주인)

國家公認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9기)	광주교육대학교(20기)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